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뉴스 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ws Literacy on
Citizenship Self-efficacy among Adolescents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김문정

뉴스 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성 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김 문 정

김문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시민적 자질, 또는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이 소유하는 보편적 권리와 자격, 덕목을 말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부분의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적인 시민적 가치들이 있지만, 한 사회 내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의 역사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한 개인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성 요소 가운데 시민적 효능감 개념이 있다. 시민적 효능감이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확신을 의미한다. 시민적 효능감의 형성 및 증진은 사회 구성원의 정치·사회적 참여 및 시민의식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다양한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이 주목받아 왔다. 시민적 효능감이 사회 참여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이 교과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 사회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인지적 측면 역시 간과되어선 안 된다.

특히 사회과는 우리 삶과 밀접한 사회 현안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우고 고민하는 교과적 특성을 지니므로, 시민적 효능감을 형성,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과 학습경험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과 시민교육은 시민적 효능감 함양과 관련하여 교과교육의 인지적 측면에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과 교과교육 내에서 시민적 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서 뉴스 리터러시에 주목하였다.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뉴스라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인지적 요소가 강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 가설 :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북지역 중소도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회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선형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변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추가설에 대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인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적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설명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별, 참여활동 경험, 임원 경험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내·외 참여활동 이외에 사회과 교과

교육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교육 역시 시민적 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지식교육을 통한 가치태도의 함양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교과교육 내에서 사회과 학습경험으로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모색하는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과 시민교육에서 시민적 효능감 형성 및 증진 방안으로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요소들이 더욱 풍부하게 논의,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 참여, 시민적 효능감, 정치효능감, 뉴스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의식

학 번 : 2020-21533

목 차

I.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문제	7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
II. 이론적 배경	12
제 1 절. 민주시민과 시민적 효능감	12
1.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사회과	12
2. 시민적 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17
3. 사회과에서 시민적 효능감의 의의	20
제 2 절. 사회과와 뉴스 리터러시	22
1. 청소년의 뉴스 이용	22
2.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	30
3. 사회과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	39
제 3 절.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	41
1.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2.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의 관계	43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46
1.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한 연구	46
2.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	48

III. 연구 설계	51
제 1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51
제 2 절. 연구 방법	52
1. 연구 대상	52
2. 연구 절차	53
제 3 절.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55
1. 독립변인 : 뉴스 리터러시	55
2. 종속변인 : 시민적 효능감	55
3. 통제변인	56
제 4 절. 분석 방법	57
IV. 결과 분석	59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	59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59
2. 측정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63
제 2 절.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4
V. 결 론	67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67
제 2 절. 논의 및 제언	70
참고문헌	72
부 록	80
Abstract	85

표 목 차

[표 II-1] 정치참여 활동 유형 구분	15
[표 III-1] 최종 연구 대상의 특성	54
[표 IV-1]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특성	60
[표 IV-2] 중학생의 시민적 효능감 특성	61
[표 IV-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인 특성	62
[표 IV-4]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63
[표 IV-5]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4
[표 IV-6] 변수 통제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5

그 립 목 차

[그림 III-1]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51
----------------------------------	----

I.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시민적 자질, 또는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이 소유하는 보편적 권리와 자격, 덕목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시민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 영역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제도나 절차 같은 외적 요건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의식 성장이 요구된다(모경환 외, 2010).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부분의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적인 시민적 가치들이 있지만, 한 사회 내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의 역사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시민성을 가르치는 시민교육은 비단 사회과의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한 개인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민성 요소이자, 시민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효과로 시민적 효능감 개념이 있다. Graham과 Weiner(1996)에 따르면 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김진철 외, 2010).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청소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적 효능감은 투표, 선거유세 참여, 반대시위, 대국민 연설, 정치 관심, 시민 행동 등 여러 정치·사회적 참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시민적 효능감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성인이 되어 정치참여나 시민 참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속력 있는 변수이다. 시민적 효능감이 시민 참여로 이어지는 논리는 성인의 특정한 속성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Krampen(2000), Pasek et al.(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효능감과 시민적 참여 활동이 성인기의 효능감과 참여 활동과 유의미하게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이 증명된 바 있다(정진리, 2019). 더불어 다른 시민성 요소들 역시 50대까지도 지속되는 안정적인 역량임을 고려할 때, 시민적 효능감 역시 오랜 시간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근래 들어서는 청소년을 성장하는 존재로서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만큼,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구성원의 정치·사회적 참여 및 시민의식 성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민교육의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는 주체적 참여자로서의 시민을 양산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조혜영 외(2008), 김영인(2007), 김태준(2016), 한인영 외(2005), 유혜영(2014))는 청소년의 다양한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 - 학생회와 같은 교내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교내·외에서 경험하는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의회와 같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형태의 다양한 자치활동 프로그램, 시민단체 활동 등 - 이 시민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공식적 교육과정 내에서 능동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시민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김명정, 2012), 여전히 학교 교과교육 내에서는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 편향 수업을 지양하는 것은 어쩌면 사회과교육 내지 시민교육에서는 보편적 전제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 판단이 인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지식 편중의 획일적 수업이 문제일 뿐, 지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송성민, 2018). 시민적 효능감 역시 그 증진을 위하여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을 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 외에, 사회과 학습경험으로서 가능한 역량 가운데 인지적 영역의 발달을 포함하는 시민적 효능감 증진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과정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삶에 대한 개인의 가치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뉴스 리터러시에 주목하였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 속 개인의 뉴스 소비는 정치·사회적 참여로서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뉴스 소비 양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뉴스를 매개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권자가 늘면서, 기성 언론은 물론이고 후보자와 정당들 역시 소셜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뉴스를 가공해 제공하고,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권자의 뉴스 소비는 투표를 위한 사전 정보의 획득과 개인의 정견 확립 목적에만 그치지 않았다.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뉴스를 찾아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디지털 공론장에 내보이며, 온라인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제 우리는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뉴스가 전달하는 내용을 넘어 뉴스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뉴스 이용자는 뉴스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주체로서 뉴스를 협업적으로 읽어낸다. 뉴스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행위 그 자체가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뉴스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고, 분별하고, 공유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어려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뉴스를 자연스럽게 보고 들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뉴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감과 댓글을 통해 드러내고, SNS를 활용해 뉴스의 확산에 기여하며, 그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는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진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 역시 청소년이 주체적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있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뉴스를 접하고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인 만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 사회적 차원에서 뉴스를 올바르게 활용·공유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그리고 뉴스 생산 과정과 뉴스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스 리터러시가 민주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자(이재원 외, 2016; Shwartz, 2011),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과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주체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과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뉴스를 교수학습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뉴스는 다른 개념이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우리가 뉴스를 주로 교과서의 탐구활동 섹션 등에서 보거나,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이유다. 둘째, 뉴스 자체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뉴스 리터러시가 주변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뉴스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뉴스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뉴스에 대한 교육’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진술문은 모두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뉴스 이용 교육’과 관련한 진술문의 경우에도 교육의 방향이나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이정우, 2021).

물론 2004년의 7차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과 수업에 부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2011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뉴스’라는 단어조차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았던 것(양정애 외, 2015)에 비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 관련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위 내에서 분명 확대되어 왔고, 이는 일견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청소년 뉴스 이용 양상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비하여 관련 교과 내용은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과에서 더욱 의미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으로서가 아닌 뉴스 리터러시 영역을 보다 독자적으로 세밀하게 연구하여야 함과 동시에 실제 교과과정에도 뉴스 리터러시 관련 내용들이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콘텐츠로부터 비롯된 저널리즘의 영역과 더불어 ‘시민성’을 강조한다. 특히,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양정애 외, 2015)로 한다는 점은 시민적 효능감이 추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학교 교과교육 내에서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정치·사회적 참여로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

존의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온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과 차별화되는 지점도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한 연구 가운데 뉴스 리터러시 역량이 시민적 효능감 함양에 어떠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라는 구체적 역량이 시민 참여 의식이 형성되고 제도적인 정치 및 사회 참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시기인 청소년 시기의 시민적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II장에서는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가 사회과의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피고, 두 요인 사이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연구변인과 측정도구,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해당 결과가 사회과 시민교육에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민적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밝힘으로써 시민성 요인으로서 시민적 효능감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 시민 참여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이와 관련한 교육적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자 자신감인 시민적 효능감 함양과 관련하여, 교과교육의 인지적 측면에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현행 사회과 시민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특히 구체적 요인으로서 뉴스 리터러시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 뉴스 리터러시 수준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해당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시민적 효능감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민주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주체적 참여자의 필요성에 기대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이론적 기반이 되는 자기효능감과 정치효능감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을 통해 시민적 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인 청소년기의 특징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과에서 뉴스 리터러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확장된 청소년의 교류와 증대된 소통이 어떻게 공적 참여를 증진시키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뉴스 활용 양상과 주요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이어서 뉴스 리터러시의 인접 개념들을 살핌으로써 뉴스 리터러시가 여타의 리터러시,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떠한 차별점을 갖는 개념인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또

한 뉴스 리터러시와 그 교육이 왜 사회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후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정치·사회적 참여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적 효능감과 인지적 역량으로서의 뉴스 리터러시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한 시민적 효능감 함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요인으로서 뉴스 리터러시를 찾고, 둘 사이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서 뉴스 리터러시를 찾고,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과 시민적 효능감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적 효능감이 함양, 나아가 고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

둘째, 사회과 교과교육에서 지식교육이 가치태도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다양한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 경험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라는 텍스트(글, 소리, 영상 등을 포괄함)를 다루는 것, 즉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인지적 요소가 강한 역량이다. 따라서 만약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검증될 경우, 정서적 행동적 영역 이외의 요소로서 지식교육을 통한 가치태도교육의 가능성을 밝힐 수 있다.

셋째, 뉴스 리터러시가 중학생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의무 교과교육 내에서의 사회과 학습경험으로서 뉴스 리터러시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사회 참여활동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학교신문 동아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해당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생만이 지원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시민적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교육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케 하고, 뉴스 활용을 통해 정치·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존 사회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부로서 진행되거나 뉴스 소비와 관련한 리터러시 위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차별화되어 교육될 필요성이 있음과 더불어 향후 더욱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유를 밝힘으로써 사회과 시민 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저변을 넓히려 시도하였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기존에 갖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보다 교육적 목적을 띠기 위해서는 향후 실제 교육적 처치의 전후 비교를 통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추후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를 연구한다면,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더욱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일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담보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을 비롯한 다양한 효능감 연구로부터 미루어 논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넷째,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는 변인의 성격으로 인하여 자칫 순환논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엄밀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 본 연구는 일회성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검사지는 자술 보고 형태로, 행위에 대한 자기판단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설명력이 부족하여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명확히 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한 연구 가운데 뉴스 리터러시 역량이 시민적 효능감 함양에 어떠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 그 관계성을 처음으로 새롭게 검증해본 것에 연구의 의미가 있으므로, 학술적 논의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민주시민과 시민적 효능감

1.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사회과

1)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은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있거나 사회관습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시민의식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모경환 외, 2010).

그렇다면 시민의식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모경환·김명정·송성민(2010)은 시민의식의 가변적 속성을 들어, 시대와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기본 가치를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로 하여, 시민들이 이 요소들의 수준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통 요소들이 있는지를 추출하였는데, 최근 10년 이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민의식의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참여의식, 관용의식,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봉사의식 등이 공통적인 시민의식 구성요소로 제시되었다.

시민의식의 공통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참여 의식은 민주주의 사회에

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공동체 발전을 위한 건설적 비판의 시각,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정의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원태, 2001).

참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첫째, 참여는 시민으로 하여금 제도과 규칙, 그리고 체제가 도덕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가치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전체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정치체제를 보다 합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집단의 의사결정과 정책의 산출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증진된다. 셋째, 다양한 참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Finkel, 1987; 모경환 외, 2010).

참여 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여겨지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한다(김원태, 2001; 이승중, 1993). 특히 권리보다 의무로서, 자유보다는 책임으로서, 사익보다는 공익 확보의 목적에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 책임, 공익에 대한 인식 없이 권리, 자유, 사익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참여는 타인,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으로 결국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누구의 이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곤경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나 책임으로서의 참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행사로서의 참여에 비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의식이 특히나 강조될 필요가 있다(김원태, 2001; 이승중, 1993).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이 소속한 사회와 집단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조그만 변화를 시도해 나가려는 노력을 ‘사회 참여’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참여는 인간의 존엄함과 합리성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개인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차경수 외, 2020). 특히 사적,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성의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 가치,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사회과 학습의 본질적 목표라 할 수 있다.(차경수 외, 2020).

이렇듯 사회 참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중요한 자질로 부각되면서, 교과 영역을 통해 시민교육의 목표가 수동적 국민으로부터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으로 변화하고 있음(김명정, 2012)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 참여의 구체적 실천 방향이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김현경, 2014; 이진석, 1999).

2) 사회 참여와 청소년

사회과에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주로 정치 참여 활동으로서 이야기 되어왔다. 정치 참여란 시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김동진 외, 2021). 투표,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 집회 참여, 시위, 서명 운동, 청원을 비롯하여 정치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 특정 정치 집단이나 정당에 느끼는 소속감, 자선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정치 참여 활동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달리 분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습적(conventional) 행위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행위, 명시적(manifest) 참여와 잠재적(latent)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관습적 행위는 투표 참여,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와 같은 것들을 지칭하며, 비관습적 행위에는 시위, 파업, 청원, 게릴라 등이 있다. 명시적 참여와 잠재적 참여는 Ekman & Amnå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비교적 최근의 분류라 할 수 있다. 먼저 명시적 참여는 정부의 결정 및 정치적 결과물에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참여 유형으로서 공식적 정치참여와 비공식

적 정치참여로 구분한다. 잠재적 참여는 정치적 영역에 대한 개인적 관심(involve-ment)를 표출하는 유형과 공식적 참여보다는 덜 직접적인 시민적 개입(engage-ment) 유형으로 구분된다(김동진 외, 202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정치참여 활동 유형 구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10)	관습적 행위	투표 참여,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 등
	비관습적 행위	시위, 파업, 청원, 게릴라 등
Ekman & Amnå (2012)	명시적 참여	공식적 정치 참여: 투표, 정치인 접촉, 정당 또는 노조가입 활동 등
		비공식적 정치 참여: 서명 운동, 청원, 시위, 파업, 집회, 폭동, 점거, 경찰과의 대치 행위 등
	잠재적 참여	개인적 관심(involve-ment): 정치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 특정 정치 집단이나 정당에 느끼는 소속감 등 시민적 개입(engage-ment): 개인적 참여 활동, 자선 활동, 타인을 돕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동은 위와 같은 자발적, 포괄적 범주들 속의 참여자라는 인식보다는 미성숙한 주체, 미성숙한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공간적 제약과 정치적 권한 행사 범위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정치참여 활동 유형 가운데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명시적이고 강력한 참여 행위인 투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완전한 정치 주체

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김동진 외, 2021).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위상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019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일부도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치·사회적 의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고 정치 참여를 통하여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한편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청소년의 참여 활동이 반드시 정치적 목적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자발성과 공공성의 차원에서 공통성을 보일 뿐(변길섭, 2014), 반드시 정치적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일컫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박가나(2008)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이라 보았다. 또한 이해주·최윤진·구정화(2008)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노력’ 또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계획, 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와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 참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유혜영, 2014).

물론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의 관계성에 대하여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의 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사회참여를 통해 공적인 업무나 정치적 이슈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둘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며, 셋째, 정치적 행위에 효과적인 자원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

회 참여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유혜영, 2014; Olsen, 1972). 반면 사회 참여가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역 공동체에서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성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태도 및 행동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정치참여에는 별다른 의미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주성수, 200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한다면,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 간에는 범주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참여가 정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사회참여 활동이 늘 정치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참여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청소년의 위상은, 사회참여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과 더불어,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미성숙한 존재로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시민(being citizen)이자 중요한 권리주체(남미자 외, 2020)로서, 또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변길섭, 2014) 존재로 그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민적 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1) 효능감, 자기효능감, 정치효능감

효능감이란 인간의 행동에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어떠한 업무/역할/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

다(김진철 외, 2010; Graham et al., 1996). 효능감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실제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기제가 되는 것인데,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효능감은 주변의 환경적 맥락이나 교육적 활동의 결과로서 형성될 수 있는 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바 있다(김동진 외, 2021).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수행(성과 창출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역능에 대한 판단이자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과제와 관련된 지식·기능·가치 및 태도의 습득에 도움이 되는 효용성(preparatory benefit)을 지닌다(오인수, 2002; Bandura, 1982; Latham 외, 1991)는 점에서 학습과 학업 관련 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1950년대부터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하위 영역으로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정치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정도를 의미한다(모경환 외, 2010; Craig et al., 1990), 즉 정치효능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며, 개별 시민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김동진 외, 2021; Campbell, Gurin, & Miller, 1954)이라 할 수 있다. 정치효능감은 처음에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정치효능감을 내적 정치효능감 -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 신뢰 - 과 외적 정치효능감 -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 시스템의 반응성에 대한 신뢰 - 로 구분하게 되었다.

정치효능감은 그 개념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강력한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의 변인으로서 주목받아 왔다(김동진 외, 2021; Kahne & Westheimer, 2006). 사회과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시민성의 주요한 하위 역량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모경환·김명정·송성민(2010)은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효능감’을 시민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즉, 정치효능감은 민주주의 체제 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 수준의 청소년들에게는 외적 정치효능감보다는 개인의 충분한 자신감이자 신념을 드러내는 내적 정치효능감과 관련한 영역이 더욱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김태한, 2013, 이정윤, 2017).

2) 시민적 효능감

시민적 효능감은 기본적으로 정치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내적 정치효능감 개념에 기반하는 한편, Bandura의 보다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개념과 관련된 것(정진리, 2019; Schulz et al., 2010)으로서, 정치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시민 참여 영역에서의 시민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차원에서 시민적 효능감은 교육부(2018)에서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사용된 바 있다. 여기서는 시민적 효능감을 ‘민주시민 역량의 하나로서,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진리(2019)는 시민적 효능감을 ‘자신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시민들 앞에서 주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16에서는 시민적 효능감을 ‘시민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하면서, 이를 ‘학생이 적극적인 시민 행동에 대해 갖는 자신감’으로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적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청소년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자 확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사회과에서는 시민적 효능감보다 내적 정치효능감을 변수로 둔 경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서술하였듯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적 성격의 참여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치효능감 개념에만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민적 효능감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대하여 연구하는 만큼, 청소년의 특징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교내·외에서 경험하는 정치·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시민적 효능감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3. 사회과에서 시민적 효능감의 의의

시민적 효능감은 투표, 선거유세 참여, 반대시위, 대국민 연설, 정치 관심, 시민 행동 등 여러 정치·사회적 참여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시민적 효능감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적어도 초기 성인기까지의 정치 참여나 시민 참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지속력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필라델피아 공립 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1-2학기 수강한 고등학생이 졸업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적 정치 효능감이 높았으며, 정치적 참여인 투표 참여 정도도 높았다는 Pasek, J., Feldman, L., Romer, D., & Jamieson, K. H.(2008)의 연구 결과나, Krampen(2000)의 중등교육을 받던 독일인 136명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정치효능감과 성인기의 정치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한편, 근래 들어서는 청소년을 성장하는 존재로서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만큼, 청소년기의 시민적 효능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Manganelli, S., Lucidi, F., & Alivernini, F. (2015)의 연구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선거, 정당 참여, 시민단체 가입 등 여러 시민적 관여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특히 시민적 효능감이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내적 정치효능감에 비해 두 배 크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Schulz(2005)의 연구에서도 10개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적 정치 효능감이 선거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맥락, 그중에서도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청소년 효능감의 많은 부분을 놓치기 마련이다(정진리, 2019). 더불어 사회과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사회 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우고 고민하는 교과적 특성을 지니므로 사회과 내에서 시민적 효능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시민적 효능감은 청소년기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과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그 목표에 걸맞게 사회 구성원의 시민의식 성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는 주체적 참여자로서의 시민을 양산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 2 절. 사회과학과 뉴스 리터러시

1. 청소년의 뉴스 이용

1) 뉴스와 디지털 미디어

‘뉴스(news)’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을 뜻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뉴스는 사회적 중요성과 잠재적 흥미를 기준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한다(이정훈 외, 2013; C. D. MacDougall, 1964). 뉴스 생산의 주체를 드러내는 뉴스의 정의로는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거나 방송되는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이정훈 외, 2013; J. Hartley, 1982), 언론사에 의해 생산되는 메시지나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방적인 메시지나 정보(이강수, 2011)가 있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뉴스를 사회조직체계의 일부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논의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기본 단위(이정훈 외, 2013)로 보기도 한다.

과거 제한된 수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신문, 방송)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던 뉴스 ‘수신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¹⁾

1)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으로 대인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전달을 의미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는 ▲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dyad communication)’ 과 ‘한 사람과 여러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 ‘대면적 커뮤니케이션(face-to-face communication)’ 과 전화·서신 등을 통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interposed communication)’, ▲ 사적인 대화 등의 ‘사적 커뮤니케이션(private communication)’ 과 연설이나 회의 등의 ‘공적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이 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그 상황이 대체로 대면적이며, 메시지의 흐름이 쌍방적이고, 대량의 정보를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속도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느리다는 특징을 갖는다. (매경닷컴,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일경제용어사전」, 2022.08.15.,

채널을 통해 뉴스 ‘수용자’로 진화하여 뉴스 소비 및 유통의 일부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기기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에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정보 전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뉴스와 관련한 콘텐츠 영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는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상호 연결성에 기반한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개인의 상황에 맞춰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수용되면서 공시성이 해체될 뿐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뉴스 수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면서 뉴스 소비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양정애 외, 2015; Mihailidis, 2012).

다양화된 뉴스 이용²⁾의 풍경에는 ①언론사 홈페이지 혹은 뉴스 공급사(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는 것, ②개인 구독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배타적으로 받아보는 방법, ③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공공 혹은 개인 계정을 팔로우하고 받아보는 카드뉴스 형태 등의 간추린 뉴스, ④사건사고와 같은 현장 모습을 편집을 거쳐 생생하게 보여주는 돌발영상 및 비하인드 영상 등이 있다. 즉 뉴스 이용은 이러한 방식들에 기반하여 뉴스를 읽거나 보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댓글, 메일,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뉴스 내용을 재가공하고, 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해 타인과 논쟁, 토론하면서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제 단순히 거대 뉴스 공급원에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257&cid=43659&categoryId=43659>.)

2) 본 연구는 개념의 명확성을 위하여 뉴스의 소비와 생산, 공유에 관여하는 것 혹은 이러한 복합적 활동을 하는 자를 통칭하는 말로 ‘뉴스 이용’, ‘뉴스 이용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뉴스 소비 및 소비자’, 혹은 ‘뉴스 수용자’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보다 한정적이라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선행 연구들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되도록 논문에 쓰인 표현 그대로를 옮기고자 하였다.

제공하는 뉴스 정보에 100% 의존하는 대신, 유사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의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심도 깊게 찾아볼 수도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뉴스 이용은 결국 뉴스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정보 통제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양정애 외, 2015).

1990년대 초반 이후 웹의 출범과 함께 가속화되어 온 이 새로운 현상을 ‘저널리즘 융합’이라 일컫는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명칭도 다양해서 교차 미디어 생산(cross media production, Petersen, 2006), 트랜스 미디어(trans media, Jenkins, 2003), 멀티플 플랫폼(multiple platforms, Jeffery-Poulter, 2003), 하이브리드 미디어(hybrid media, Boumans, 2004), 인터미디어(intermedia, Rajewsky, 2002) 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왔다(황용석 외, 2012).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뉘는데, 첫째로 미디어 융합의 일부로서의 기술·산업적 접근, 그리고 둘째로 융합문화적 접근이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 융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술·산업적 접근은 전통적 뉴스 생산자인 인쇄미디어, 방송미디어, 통신미디어의 융합으로서, 뉴스 생산 체계 내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의 연관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저널리즘 융합을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시각은 기술·산업적 시각에서 미디어 내부의 조직합리화보다 구조 바깥의 새로운 힘 또는 세력의 자율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디어 산업이 변모하는 힘을 수용자의 참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자 스스로 산재된 미디어 콘텐츠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문화적 전환이자 과정으로서 해석한다(황용석 외, 2012).

대표적으로 젠킨스(Jenkins, 2006)는 현 시대를 ‘컨버전스(convergence: 통합, 융합, 복합) 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서, 디지털 문화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참여의 특성에 주목해 “미디어의 생산자

와 소비자가 서로 개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 보다, “미디어 생산자의 힘과 소비자의 힘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컨버전스 패러다임 하에서 뉴스 수용자는 능동적인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 및 뉴스 생산자와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현상(이재원 외, 2016; Jenkins 2008)이 발생함을 짚어냈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브룬스(Bruns, 2008) 역시 뉴스 이용자가 뉴스 소비뿐만 아니라 유통, 생산에도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produce)’ 과 ‘이용(usage)’ 의 합성어인 ‘생이(produsage)’ 의 개념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뉴스 생산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였는데, 전통 미디어의 전문 뉴스 생산자가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을 거쳐 뉴스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워칭(gatewatching) 과정 속에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된다. 이때 모든 뉴스 이용자는 주체가 되어 뉴스를 지켜보고, 뉴스의 결정이나 작성은 물론 작성 뒤의 수정까지 협업하여 끊임없이 덧읽고 덧쓴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뉴스 이용자들은 “그들 자신이 흥미롭고 저장할 만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좋다” 고 생각하는 뉴스 소스를 게이트워칭한 뒤, 협업적으로 기사를 편집하며, 이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정은 순환적인데, 브룬스는 이를 “뉴스의 발행(publishing)이 아니라 공표(publicizing)” 라고 보았다(이재원 외, 2016; Bruns, 2008).

요약하자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뉴스 이용자들은 뉴스 소비와 개인적 유통을 넘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찾고 만들어내는 생산 영역에 관여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뉴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는 21세기의 저널리즘 모형으로 전망돼 왔던 참여 저널리즘의 형태가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저널리즘과 청소년의 뉴스 이용

(1) 디지털 저널리즘: 참여와 공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 행태를 통칭하여 디지털 저널리즘이라 한다면, 이 디지털 저널리즘이 전통 미디어(legacy media) 저널리즘과 구분되는 지점은 네트워킹을 통한 참여와 공유에 있다. 특히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며 뉴스 수용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존 언론은 이전보다 축소됐고, 뉴스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언론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뉴스를 공유하는 것이 쉬워졌고,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 연성뉴스가 강세를 보이며, 뉴스, 정보, 광고의 경계가 흐려지고, 뉴스 콘텐츠가 다양화되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뉴스 이용률과 신뢰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이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 포털은 84.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69.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5.4%, 메신저 서비스가 84.1%에 달하였으며, 뉴스/시사정보 이용률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포털이 79.2%,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26.7%,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1.9%, 메신저 서비스가 17.2%를 차지함과 동시에 4대 매체 모두 3개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이용이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온 데 이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는 뉴스, 즉 영상 뉴스에 대한 선호가 커진다는 징후도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장윤재, 2021). 더불어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매체사에 대한 설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매체사에 대한 설문에서 10위 권 안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일종인 유튜브

(YouTube)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들은 기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뉴스 이용자의 요구와 조응(장윤재, 2021)해 이들의 목소리를 사실처럼 확산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른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뉴스 이용자들 역시 개인적 도구적 수단으로서 뉴스를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회 참여 활동이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추동되는 활동(이재원 외, 2016; Purcell, Rainie, Mitchell, Rosenstiel, & Olmstead, 2010)으로서, 참여와 공유를 통해 뉴스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 과정이자 그 결과물(황용석 외, 2012)을 통칭하는 용어로 ‘참여 저널리즘’이 있다. 참여 저널리즘은 다양한 참여의 플랫폼, 특히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위키 등의 온라인 협업도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다양한 온라인 환경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넓게는 공공(public) 저널리즘, 시민(civic) 저널리즘, 공동체(communitarian) 저널리즘을 포함하며, 좁게는 시민(citizen) 저널리즘, 민중(people) 저널리즘, 오픈소스(open-source) 저널리즘, 클라우드 저널리즘, 협업 저널리즘(황용석 외, 2012; Deuze, 2008)을 정의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되어 왔다.

참여 저널리즘이 뉴스 이용의 ‘참여’에 초점을 둔 용어였다면, ‘공유’에 보다 집중한 관점으로는 Choi(2016)와 이재원 외(2016)의 연구가 있다. Choi(2016)는 뉴스 공유를 내면화(internalization)와 외재화(externalization)의 두 차원으로 나눠 파악했다. 뉴스 독자로서 브라우징(browsing)과 개인화(personalizing)를 통해 뉴스를 내면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맥락화(recontextualizing)와 지지(endorsing)의 외재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재원(2016)은 이러한 뉴스 공유의 특성을 소비와 생산의 차원으로 연결시킨다. 뉴스 이용자는 자신의 앞에 놓이는 신문 방송 등 전통

미디어 생산물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큐레이션해 놓은 뉴스들을 브라우징하게 된다. 이후 이렇게 브라우징한 뉴스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고르고 배치하며 소비하는 편집의 과정이 발생하는데, 모바일 기기의 휴대성과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뉴스의 개인화 경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맞춤형 상품이 전달될 수 있어서 뉴스 이용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개인화된 정보의 묶음을 갖게 된다(이재원, 2016; Lusk, 2016). 개인화는 취향을 중심으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만, 자칫 편협한 사고와 편향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확증편향의 위험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브라우징과 개인화로서 뉴스 소비가 일어난 후에는, 선별한 뉴스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를 태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뉴스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등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ing) 작업이 이루어진다. 원래의 콘텐츠에 뉴스 이용자의 의견이 첨부되면서 다양한 층위의 맥락 정보가 다른 뉴스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다. 따라서 ‘뉴스를 읽는다’는 의미는 이제 뉴스의 맥락은 물론, 겹겹이 쌓인 뉴스 공유의 맥락까지 읽어낸다는 뜻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뉴스 공유는 일종의 뉴스 생산 행위인 셈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원, 2016). 더불어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기사에 ‘좋아요’ ‘나빠요’ 등의 버튼으로 지지(endorsing) 여부를 나타내는 과정도 새로운 뉴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의 뉴스 경험을 공유하고 포스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16; Choi, 2016). 뉴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활동은 뉴스 이용자가 해당 뉴스를 확인할 때 여론을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이로써 이해의 맥락을 달라지게 한다(이재원, 2016)는 점에서 뉴스 공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뉴스 이용과 사회 참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201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읽은 청소년은 열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지만, 뉴스·시사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 명 중 여덟 명 정도였고, 하루 평균 뉴스 이용시간도 한 시간 정도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는 모바일 인터넷(61.6%)으로, 하루 평균 약 30분가량을 뉴스나 시사 정보 이용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콘텐츠로는 SNS(34.6%), 포털사이트(27.8%),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19.9%), 메신저 서비스(7.9%), 언론사 홈페이지(6.2%) 등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로 뉴스를 접했다는 응답(3.5%)도 있었다. 주로 접하는 뉴스 주제는 사회(사건사고·범죄)(58.0%), 연예·오락(51.5%), 정치(38.7%) 순이었다(중복응답).

뉴스 이용 행태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약 세 명 중 한 명 정도가 도움이 되는 필요한 뉴스를 선택해 보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본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언론사를 확인해 본다고 했고, 다섯명 중 한 명 정도가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비교해 보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언론사의 뉴스도 본다고 응답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특히 청소년들이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주로 이용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할 기회 및 실제 행동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구체적인 행동은 뉴스와 댓글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뉴스를 전달하는 소극적인 의견 표명에서부터, 직접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남기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까지 다양했다. 또한 뉴스를 읽고 길거리나 인터넷 서명운동(24.2%), 기부(52.3%), 자원봉사활동(60.1%), 국민청원 참여(32.6%), 캠페인 참여(44.4%) 등의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모

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

뉴스 리터러시를 학술적으로 연구한 역사가 오래지 않은 만큼, 연구자마다 그 개념과 관련한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경험적 연구에 앞서 뉴스 리터러시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리터러시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뉴스 리터러시와 그 인접 개념들을 검토한 뒤, 뉴스 리터러시가 여타의 개념들과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화되는지에 대하여 논증해 볼 것이다.

1)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

(1) 리터러시

리터러시(Literacy)는 ‘탈문맹’, ‘문해력’, ‘문식성’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먼저 ‘문맹’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글을 보지 못하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글이라는 것이 문자라는 시각적 기호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보면, 글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문자를 읽지 못한다는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맹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볼 때, 글을 읽는다는 것은 ‘탈문맹’이다.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읽고 쓰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과 능력이 습득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의 리터러시는 글자 자체를 읽고 쓰는 일보다, ‘글을 풀어내는 힘’, 즉 ‘문해력’이라는 말에 더 가깝게 쓰인다. ‘문식성’이라는 표현은 학계의 표기에 주로 등장하는데, ‘글을 안다’ 혹은 ‘글로써 안다’라는 중의적 의미로서, 읽고 쓰기 위한 배

움과 배움을 위한 읽기와 쓰기가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성질, 상태, 원리 등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조병영, 2021).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번역어들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충분히 아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순히 글자라는 추상적인 기호를 보고 읽고 쓰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배움의 수단이 되는 역량으로 국한하기에 리터러시는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Paulo Freire는 리터러시를 ‘단어 읽기와 세상 읽기 (reading the word and reading the world)’ 라는 대구적 표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조병영, 2021; Freire. P., 1985). 글을 읽는 일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즉, 리터러시는 글로 이루어진 것들을 잘 읽어 내어 개인적 배움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결부해 생각될 때 비로소 그 가치와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기저에 둔다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이와 관련해 조병영(2021)은 리터러시라는 말이 쓰임을 갖는 현대 한국의 맥락을 ‘부재의 시기’, ‘대립의 시기’, ‘혼재의 시기’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그 양상을 살피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50년대 문맹(illiteracy)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정부의 문맹 퇴치 사업이 전부였던 ‘리터러시 부재’의 시기를 지나, 1960-199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가 충돌하며 학교 내의 ‘표준화된 리터러시 (standardized literacy)’와 ‘학교 밖 이념적 리터러시’가 혼재하던 시기를 넘어, 2000년대 이후의 ‘다원적 리터러시’ 환경에 진입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다양성의 리터러시, 즉 ‘다양한 정체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경험(조병영, 2021)’를 가능케 했으며, 이렇게 복합적으로 실천되는 리터러시를 가리켜 ‘멀티플 리터러시(multiple literacies)’,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ies)’라 부른다. 이때 리터러시와 결합하는 객체가 무엇인가

에 따라 리터러시 구성 요인의 내용이나 중요성이 달라진다(양정애 외, 2015). 그러나 리터러시의 객체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맥락의 텍스트로 표현되고 이해된다. 다시 말해 텍스트가 특정 영역에서 특정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텍스트들은 편향되어 있는 사회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조병영, 2021).

결국 다양성 시대의 리터러시란 다양한 텍스트를 다루는 일이자 역량으로서, 글자를 깨치고 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며, 그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문화적 실천이자 소통방법이다.

리터러시는 개인이 당면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에 참여하며, 첨예한 토론의 과정에 기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뉴스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NIE

앞선 리터러시 개념에 의하면,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에 관한 리터러시이자, ‘뉴스라는 텍스트’와 관련하여 읽고 쓰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종종 포괄적 용어로 활용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분야다.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늦게 연구가 시작된 신생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터러시 자체의 개념적 융통성과 더불어, 뉴스라는 콘텐츠가 21세기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형화된 형태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몫 한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보다 앞서 국내에 소개되었던 NIE(뉴스 활용 교육)와도 ‘뉴스와 관련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로 다가오기에, 둘 사이의 차이점이 한눈에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양정애 외, 2015).

어떠한 개념을 정의할 때, 해당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요소들에 기반하여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접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개념을 설명한다면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뉴스리터러시와 그 인접 개념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NIE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고자 한다.

①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리터러시의 객체인 미디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다. 미디어 자체를 읽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지능력(문해)의 확장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 비언어, 영상, 음향, 시각적 신호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해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미디어를 매개로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용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수용과 관련된 합리적 판단 능력 및 자기표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Tyner(2014)와 Potter(2013)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조적인 정보의 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로버트매코믹재단(Robert McCormick Foundation)과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즉 ‘메시지를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은 비판적인 사고방식(critical

thin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체화할 것을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학습(양정애 외, 2015; Potter, 2010)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사고력의 함양과 관계성이 깊은 역량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ufderheide(1993)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시민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즉 ‘메시지 생산자’로서의 측면을 최종적인 목표로 고려한 것이다.

홉스(2010a)는 이보다 더욱 넓은 시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생활의 기술이란 책임감 있는 선택, 다양한 메시지의 분석,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숙고, 사회적인 활동 등을 포괄한다(양정애 외, 2015).

조병영(2021)은 미디어를 세 가지 관점 - 기술로서의 미디어(media as technology), 텍스트로서의 미디어(media as text), 맥락으로서의 미디어(media as context) - 으로 분류하면서, ‘텍스트로서의 미디어’를 넘어 ‘맥락으로서의 미디어’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텍스트로서의 미디어’ 관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로 보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과정과 결과, 요인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맥락으로서의 미디어’ 관점은 미디어가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동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이때의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 사회에서 맥락화된 읽기와 쓰기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 할 때 미디어 ‘시대’의 리터러시,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수행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②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중심으로 기기와 인터렉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 운동성, 사회성, 감정 기능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양정애 외, 2015; Bawden, 2001)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몇 가지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삼차원의 좌표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이퍼텍스트화³⁾된 ‘공간성’과 ‘비선형성’, 대량의 정보를 취급하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백과사전성’, 사용자와 환경, 사용자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성’, 관점에 대한 ‘다원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뉴스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집합을 만들어낸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리터러시’ 자체를 단순 기능(skill)의 습득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며, 다만 각 개념이 포괄하는 내용의 등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상위 개념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3) 노드(node)와 링크(link)를 통해 웹 상의 다른 문서나 멀티미디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텍스트. 초기의 텍스트는 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페이지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한 것이 ‘하이퍼텍스트’로, 문서 내 단어와 목차 등이 또 다른 문서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이퍼텍스트’ , 「두산백과」 , 2022.08.1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0583&cid=40942&categoryId=32838.](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0583&cid=40942&categoryId=32838))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미디어 자체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Bawden(2001)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확장된 지식, 인지, 태도에 관련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③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는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저장된 정보를 꺼내 오고 이를 이용하는 일련의 기능들(set of skills)로 구성돼 있다(Bawden, 2001). 최근의 정보 리터러시는 특정한 정보 자원이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보의 이용과 관계되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Bruce, 2011). 여기에는 탐색한 정보에 대한 선별적 이해와 수용이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

④ NIE(신문 활용 교육: Newspaper In Education)

NIE(신문 활용 교육; Newspaper In Education)은 신문이라는 특정 매체를 매개로 하여 정보 해독 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NIE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피교육자가 뉴스,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반적인 인지 능력, 즉 읽기와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신문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 사회 통합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 나아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종이신문 이용이 저하되면서 신문 이용

동기 및 이용의 효과를 고양하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NIE를 부각시키기도 한다(양정애 외, 2015; Newton, 1985, 이화행 외, 2011).

한국 사회에서는 NIE가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돼 왔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NIE를 사회과와 국어과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신문 지면의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사회에 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NIE 관련 사회적 담론 및 학술 문헌은 1980~199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그 수가 줄고 있다. 양정애 외(2015)는 그 원인을 뉴스 수용과 관련되어 있는 NIE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뉴스 이용 관련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서 찾는다. 특히 NIE가 시민성에 관한 기초 역량 제고를 지향하는 교육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지라도, 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 능력과 빠른 판단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를 통하여 이러한 NIE의 기본 영역을 전제로 한, 혹은 NIE의 영역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성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뉴스 리터러시를 단순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만 보기는 어렵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콘텐츠가 ‘뉴스’이며,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력에 초점을 둔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차이가 있고(이정우 2021),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가 갖는 특성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의 ‘미디어 콘텐츠’의 특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뉴스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뉴스라는 콘텐츠로부터 비롯된 저널리즘의

영역과 더불어, ‘시민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뉴스 미디어에 담긴 진실, 정보,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담당하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뉴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뉴스 리터러시는 ‘정보 홍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숙한 민주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와 같은 고차원적인 질문을 뉴스 수용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한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능력을 키워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양정애 외, 2015).

뉴스를 게이트워칭하며 공유해 나가는 시대에 뉴스 이용자는 뉴스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주체로서 뉴스를 협업적으로 읽어낸다. 이제 뉴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은 이제 미디어의 하위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누구나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뉴스의 공유 증가 현상에 따라 다양한 뉴스 생산물이 증가하지만, 한편으로는 큐레이션 된 콘텐츠 안에 머물며 취향 위주로만 소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모바일이나 소셜 미디어의 유도 알고리즘에 따라 공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칫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뉴스 리터러시를 독자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서 작용한다(이재원 외, 2016).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⁴⁾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뉴스의 중요성에

4) 참조한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서술한 ‘디지털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

대한 입장은 기존의 뉴스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피력해 온 학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뉴스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도구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즉,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어냄으로써 정보를 명확히 소화하여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양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 공유 시대에서는는 뉴스 이용이 곧 민주주의 시민의 필수 활동이기에 뉴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환경에서 포털사이트가 뉴스 유통의 주요 채널이자 참여의 공간이 되고, 소셜 미디어의 뉴스 플랫폼화로 공유의 공간이 마련되면서 시민 간,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 대화의 장이 뉴스 소비와 맞물려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원 외, 2016).

3. 사회과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와 민주사회의 연관성을 근본적으로 고려(J. Lie 외, 2016)하면서, 뉴스에 대한 선별적 접근과 비판적 수용, 뉴스의 생산 및 유통에의 참여와 공공 사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청소년의 뉴스 이용이 사회 참여와도 연결되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과교육 내에서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이 자명해진다. 특히 국어과나 도덕과 등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교육에서 교과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사회과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를 담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과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시민은 사실상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이라 할 수 없음

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두 표현이 유사하나 디지털 환경이라는 시대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을 들어, 시민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는 다양한 노력(차경수 외, 2020)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교육에서 지식 측면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 및 태도에 대한 부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송성민, 2018). 특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일수록 자신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진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송성민, 2018)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과수업을 통하여 길러줄 수 있는 역량이면서도 사회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인 뉴스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

1.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효능감 개념을 포함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해 왔다.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로 는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 교내 학습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 학교의 분위기 및 학급풍토, 성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치)시민적 효능감은 주변의 환경적 맥락 또는 교육적 활동의 결과로서 형성될 수 있는 태도의 일종이라는 점(김동진 외, 2021)에서,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다양한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교 안팎의 활동들이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운(2017)은 전교어린이회 선거활동 참여가 정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비슷하게 김태한(2013)은 학교 내에서의 참여가 청소년의 시민지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교내 맥락 속에서의 사회 참여로서 교육적 활동이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위정(2012) 역시 학생회 등 교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과 더불어 동아리, 봉사활동 등 교내에서의 비교과 활동 참여가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유혜영(2014)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급토론 참여, 교내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교내 임원 출마 등과 같은 사회참여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미래 정치참여 의사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인(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의회 참여나 학생회 선거 참여, 위원회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비롯한

청소년의 시민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교내·외의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주요함이 밝혀졌다. 다만, 시민적 효능감이 시민성 형성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임에도, 미래 정치 참여 혹은 사회 참여의 매개 변인으로서 다수 연구되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 교내 학습경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길혜지·박지민·조효제(2020)는 2016 ICCS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성과 관련한 교내·외의 학습경험이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시민성 관련 교내 학습경험이 교외 활동 참여보다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외 연구 가운데서도 Pasek, Feldman, Romer, & Jamieson(2008)은 학교 내 정치교육 프로그램인 Student Voice 프로그램⁵⁾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보다 내적 정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이를 매개로 정치적 관심(political attentiveness)이 높아져 투표 참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동진 외(2021)는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민주적 학급풍토에 주목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실 환경이 민주적으로 조성될수록 청소년의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학급 풍토란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실제적인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치 효능감을 매개로 정치참여 의도를 높일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구성원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토의·토론 등의 교수학습방법을 자주 활용하는 사회과

5)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정치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하고, 그 문제들이 지역과 주 정부에 있어 중요한 정치활동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태한(2013) 역시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이 정치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진리(2019)는 성별을 주요 변수로 두고 시민적 효능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성인 여성은 외적·내적 정치효능감 모두 성인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설명력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 1960년대 여성들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 노동 참여율과 임금 등이 현저히 낮았던 때는 물론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내적 정치효능감에서의 성차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간 내적 정치효능감과 시민적 효능감에 차이가 미미함이 밝혀졌다. 이에 연구는 청소년의 경우 모델링을 통해 학습을 활발히 한다면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여성 롤모델의 효과는 성평등 의식 수준에 비례했고, 특히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민적 효능감과 뉴스 리터러시의 관계

지금까지 시민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이나 프로그램, 퐁토 등을 통해 효능감을 함양하려는 가치태도 위주의 교육적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의미하게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통해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내·외 사회참여 활동과 더불어, 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습득 및 참여 가능한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교 교과교육 내 접근법을 고안하는 방향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주요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뉴스라는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 역량으로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해당 역량(뉴스 리터러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론적 내용 요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얻어진 콘텐츠에 대한 지식과 뉴스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시민적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정훈·이두황(2013)의 선행 연구는 ‘뉴스에 대한 지식 체계’가,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효능감과 자신이 검색한 뉴스와 정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표현, 전달하고자 하는 효능감에 기반하여 결과적으로 전통 미디어(신문, 방송)와 뉴미디어(뉴스블로그, SNS 등) 모두에서 뉴스 미디어 이용 역량을 높인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뉴스 미디어 이용 역량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목표로 하는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시민적 효능감은 시민성 함양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적 효능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해당 연구는 뉴스에 관한 지식체계라는 교육요소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과정을 개발,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뉴스 리터러시라는 인지적 역량이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유의미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내 학습경험이 교외 활동참여보다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업에서 다양한 시민성 관련 주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길혜지 외, 2020)결과에 따라, 사회과 내용요소로서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양한 분야의 뉴스 읽기와 이해를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현명하게 이용하며(지식 및 기능), 뉴스가 갖는 개인적·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상을 구현하

는 것(가치 및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치태도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교내·외 활동경험이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뉴스 리터러시 역시 교육의 효과로서 시민교육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이숙정 외, 2017),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이 두 역량은 기본적으로 시민적 효능감에 기반해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한 연구

교육 분야의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대개 시민성이나 시민의식의 구성요인으로서 연구되거나, 주로 정치효능감 개념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시민적 효능감’ 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시민적 효능감은 그 자체로 종속 변인으로 설정되기보다는 사회참여나 정치 참여의 매개변인으로 연구된 경우가 많았다.

김명정(2017)과 모경환·김명정·송성민(2010)의 연구는 시민성 혹은 시민의식의 한 변인으로서 정치 효능감과 시민적 효능감을 제시하면서, 정치교육의 이수 여부가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길혜지·박지민·조효제(2020)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성 관련 활동, 시민적 효능감, 미래 정치참여 의식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시민성 관련 교내외 활동, 시민적 효능감, 미래 정치참여 의식 간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성 관련 교내 학습경험이 교외 활동참여보다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이유로, 미래 정치참여 의식 제고를 위해 수업 중 다양한 시민성 관련 학습 기회를 부여하며 청소년들이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성공 경험이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교과교육 자체가 아닌 개방적 토론 풍토, 주제학습, 참여형 수업과 같은 교실환경 및 수업방식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 측면의 시민적 효능감 제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김태한(2013)은 다양한 개인 및 맥락변인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

식과 내적 정치효능감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면서, 학교 참여와 대중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등은 청소년의 시민지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교외 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자원은 시민지식 수준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두 연구(길혜지 외(2020), 김태한(2013))를 통하여 시민적 효능감에는 교내 요인이 교외 요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관계성을 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역시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내 요인을 찾아 밝히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적 효능감이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 시민참여활동을 조사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유혜영(2014)은 청소년의 학급토론 참여, 교내 투표 참여,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교내 임원 출마 등과 같은 사회참여가 자아효능감을 매개하여 미래 정치참여 의사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으며, 김영인(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의회 참여나 학생회 선거 참여, 위원회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비롯한 청소년의 시민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변길섭(2014)은 이를 확장하여 참여기구와 자원봉사동아리 활동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동아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의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혜영·최창욱(2008)은 질적연구방식을 택하여 청소년참여기구에 속한 청소년들과 심층면담을 함으로써, 청소년참여기구가 정치적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외에 정진리(2019)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롤모델의 효과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 모델링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풍부한 여성 롤모델의 제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동진·김재우(202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민주적 학급풍토에 주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효능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본 바 있고, 이정민·정혜원(2019) 역시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라는 변인에 주목하여 시민의식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2.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

교육 분야에서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연구는 대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으로 파악되어왔으며, 현재 사회과 내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활동의 효과로서 뉴스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연구, 가짜뉴스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정은(2021)은 스토니브룩 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해체 워크북을 토대로 하여, 카드뉴스를 활용하는 초등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동을 고안하였다. 전자배(2021)는 NCSS 탐구 설계 모형에 기반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댓글 중심의 사회과 뉴스 리터러시 수업 방향을 모색하였다. 장은주 외(2017)는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중학교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김아미(2017)가 청소년의 뉴스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뉴스리터러시 교육 방향을 탐구한 바 있으며, 최길성(2022)은 가짜뉴스 대응 교육으로서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을 고안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와 교육과의 연관성을 살피기 이전에,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 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원 외(2016)는 뉴스 리터러시의 구성 요인을 뉴스의 소비/생산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뉴스의 소비 능력은 내면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뉴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의 생산 능력은 외재화 능력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정훈 외

(2013)는 능동적 뉴스 소비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뉴스 콘텐츠에 대한 지식 체계와 뉴스 처리 관여도로 뉴스 리터러시 구성 요인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관여도(invovement)란 개인의 관심 등 내재적인 욕구에 근거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관련성을 의미하며,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이 메시지를 인지적으로 찾아내어 처리하려는 동기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뉴스 처리 관여도란 뉴스 이용자가 뉴스 콘텐츠를 처리할 때 얼마나 인지적 선택을 하는가와 관련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양정애·최숙·김경보(2015)의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를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교차 영역으로서 뉴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 분석, 평가하며,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뢰도가 높은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뉴스의 소비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 셋째,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구성 요인을 조금씩 달리 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단순히 수동적인 뉴스의 수용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인 참여자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기반하여 이숙정·양정애(2017)는 뉴스 리터러시 역량의 하위차원들이 시민성의 토대가 되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뉴스활용교육(NIE) 경험이 뉴스 리터러시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전에는 뉴스 리터러시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도구적인 능력으로 간주하여,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스에 대한 접근, 분석 및 평가와 관련한 역량을 중심에 두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뉴스 리터러시만의 차별성을 밝히고 뉴스 리터러시 역량의 목표를 시민성 함양에 둬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에 주목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몇몇 연구들의 경우 사회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2021)는

한 대학교의 사회과 교과교육 수업에서 사회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5주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 예비교사들이 뉴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향상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사회과 수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신감은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도안으로 표현한 교수학습에의 적용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였다. 김영석(2021) 역시 중등학교 사회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뉴스비평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이 이들의 뉴스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30분간의 단선적 뉴스비평교육으로서 과연 그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나, 결과적으로 뉴스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치지식보다 뉴스미디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강화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시민성을 측정하는 연구조차 미디어 분야나 국어과에서 주로 연구되어, 실제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는 점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한편으로 추후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사회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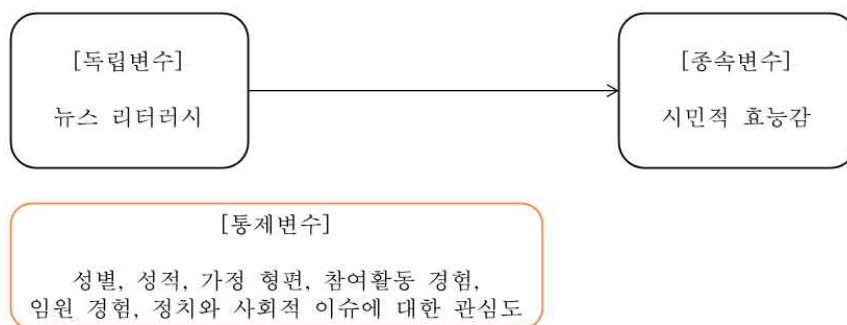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뉴스 리터러시는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한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을 측정하고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해당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북지역 중소도시 중학교 1개 교의 1학년 남녀 학생 250여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이 모두 중학생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양정애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 연령대를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해 뉴스에 친숙해지고 뉴스 보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뉴스 리터러시 역량이 발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은 중등학교 수준이다. 또한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해서도, 중학생은 정치참여 의식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때 형성된 의식이 고등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고정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변길섭, 2014; 길혜지, 2020)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대규모(large-scale) 횡단(cross-sectional) 다국가(cross-national) 데이터를 포함하는 국제 교육 성취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ICCS에서도 같은 이유로 8학년(만 13.5세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목표 모집단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 투표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중학생 시기는 제도적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시기이자 의무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중교육의 영향력 하에 시민적 효능감을 확인하기 적합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추후 확장시키기 위해서도 주요한 학년수준이다.

더불어 연구의 주요 변인인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은 사회문화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구통제를 통하여 그 영향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자 하지만, 표집의 동질성을 위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도시지역의 중학교 1개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학교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의서 및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2022년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약 1주간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다.

1학년 전체 학생 246명 가운데 총 216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응하였고, 세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이 3부 존재하였다. 또한 일부 학생의 경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같은 변수를 비롯하여 성적, 가정형편 등 경우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무응답으로 반응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총 29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을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4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 및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인에 대한 특성은 다음 장에 기술된 [표 III-1]와 같다.

[표 Ⅲ-1] 최종 연구 대상의 특성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90	48.9
	여	94	51.1
나이	1학년 (14세)	184	100
성적	상위 20% 이내	59	32.1
	20% 이상 ~ 40% 미만	42	22.8
	40% 이상 ~ 60% 미만	47	25.5
	60% 이상 ~ 80% 미만	26	14.1
	80% 이상 ~ 100% 미만	10	5.4
가정형편	매우 여유가 있다	21	11.4
	대체로 여유가 있다	65	35.3
	걱정은 없다	90	48.9
	약간 가난하다	7	3.8
	생계가 걱정된다	1	0.5
참여활동 경험	있다	161	87.5
	없다	23	12.5
임원 경험	있다	56	30.4
	없다	128	69.6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이 있다	11	6.0
	관심이 있는 편이다	46	25.0
	보통이다	75	40.8
	관심이 없는 편이다	38	20.7
	전혀 관심이 없다	14	7.6
합계		184	100

제 3 절.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1. 독립변인 : 뉴스 리터러시

독립변인의 측정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선별, 범주화 한 양길석 외(2021)의 뉴스 리터러시 척도를 활용하였다. 언론수용자조사는 미디어 이용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미디어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8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 조사연구이다. 양길석 외(2021)의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는데, 문항 예시로는 ‘나는 인터넷 포털 뉴스 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나는 내가 본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 등이 있다(Cronbach’s α = .868).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도 부합하여 총 7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2. 종속변인 : 시민적 효능감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해서는 ICCS 2009 측정 문항을 활용한 길혜지 외(2020)의 시민적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민적 효능감은 단일요인으로서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에 관련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국가 간 갈등을 다룬 뉴스를 보고 이와 관련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나는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등이 있다(Cronbach’s $\alpha = .878$). 각 문항은 ‘매우 잘한다(4점)’, ‘잘하는 편이다(3점)’, ‘못하는 편이다(2점)’, ‘매우 못한다(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을 정리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적 효능감을 비롯한 기존의 시민의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성별, 성적, 가정 형편, 참여활동 경험, 임원 경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통제변인으로 두고, 각각에 대한 측정 문항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항과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적 변인은 ‘상위 20%’부터 ‘80% ~ 100%’까지 20% 단위로 측정하였다. 가정 형편 변인은 ‘매우 여유가 있다’부터 ‘생계가 걱정된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인은 ‘매우 관심이 있다’부터 ‘전혀 관심이 없다’의 5수준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여활동 경험과 임원 경험 변인의 경우에는 ‘있다’와 ‘없다’의 경험 유무로만 대답하도록 하였다.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9.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과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분석과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기법 및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 시민적 효능감 및 통제변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처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인 전북지역 중소도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뉴스 리터러시 및 시민적 효능감 변인에 대해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일반적 가정으로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뉴스 리터러시가 종속변인인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생변수를 통제된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그리고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참여 활동 경험, 임원 경험을 더미변수화한 후, 통제변수를 독립변수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주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e$$

Y : 뉴스 리터러시

β_0 = 상수

X_1 : 시민적 효능감

X_2 : 성별 (0=남성, 1=여성)

X_3 : 성적

X_4 : 가정 형편

X_5 : 참여활동 경험 (0=있음, 1=없음)

X_6 : 임원 경험 (0=있음, 1=없음)

X_7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e : 오차항

IV. 결과 분석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전북지역 중소도시 중학교 1개교 1학년 학생 184명의 측정 변인들에 대한 응답의 전반적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뉴스 리터러시 및 시민적 효능감 변인에 대하여 갖는 특성을 함께 기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뉴스 리터러시

독립변수인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84명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중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특성(N=184)

변인	평균(순위)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뉴스 리터러시	2.48	0.875	1.00	5.00	
문 항	1	3.11(2)	1.202	1.00	5.00
	2	2.33(3)	1.118	1.00	5.00
	3	2.32(4)	1.126	1.00	5.00
	4	3.14(1)	1.296	1.00	5.00
	5	2.26(5)	1.152	1.00	5.00
	6	2.19(6)	1.211	1.00	5.00
	7	2.01(7)	1.074	1.00	5.00

학생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에서 평균적으로 2.48점을 얻어 (SD=.875) 보통 수준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별로 비교하였을 경우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한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을 상회하는 문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뉴스를 볼 때 댓글도 함께 본다(3.14)’ 였으며, ‘나는 인터넷 포털 뉴스 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가 3.11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나는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2.33)’, ‘나는 내가 미리 설정한 서비스(My뉴스, 구독 등)를 통해 뉴스를 확인한다(2.32)’, ‘나는 내가 본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2.26)’, ‘나는 내가 본 뉴스나 뉴스 댓글에 공감 표시를 한다(2.19)’, ‘나는 내가 본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SNS 등에 공유한다(2.01)’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뉴스를 공유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의 점수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 4(나는 뉴스를 볼 때 댓글도 함께 본다)와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 7(나는 내가 본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SNS 등에 공유한다)의 평균 차이는 약 1.13점으로, 뉴스 리터러시 척도

전체의 표준편차가 0.875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시민적 효능감

종속변수인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84명의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중학생의 시민적 효능감 특성(N=184)

변인		평균(순위)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시민적 효능감		2.57	0.651	1.00	4.00
문 항	1	2.70(3)	0.791	1.00	4.00
	2	2.80(2)	0.799	1.00	4.00
	3	2.37(6)	0.950	1.00	4.00
	4	2.42(5)	0.871	1.00	4.00
	5	2.84(1)	0.758	1.00	4.00
	6	2.18(7)	0.833	1.00	4.00
	7	2.68(4)	0.881	1.00	4.00

학생들은 4점 척도로 측정되는 시민적 효능감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2.57점을 얻어(SD=.651),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문항별로 대조해 보면, 행위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나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텔레비전(TV) 토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2.84)’, ‘나는 논쟁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2.80)’, ‘나는 국가 간 갈등을 다룬 뉴스를 보

고 이와 관련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2.70)', '나는 학급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발표를 할 수 있다(2.68)' 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민적 효능감을 보여주었으며, '나는 교내외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 조직(동아리, 자치조직 등)을 만들 수 있다(2.42)', '나는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2.37)', '나는 언론사에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낼 수 있다(2.18)' 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순차적으로 낮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생들은 정치사회적 이슈를 비롯한 논쟁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사적 및 공적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덜함을 알 수 있다.

3) 기타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인을 설정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84명의 관심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인 특성(N=18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심도	2.99	1.003	1.00	5.00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변인의 평균은 2.99로(SD=1.003), 학생들은 대체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도 분석 결과 해당 문항에 대하여 보통이다(40.8%)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관

심이 있다(6%), 관심이 있는 편이다(25.0%), 관심이 없는 편이다(20.7%), 전혀 관심이 없다(7.6%)로,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일반적 가정으로서 독립변인인 뉴스 리터러시와 종속 변인인 시민적 효능감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뉴스 리터러시	시민적 효능감
뉴스 리터러시	1	
시민적 효능감	0.320 ^{***}	1

* p<.05, ** p<.01, *** p<.001

이에 따르면,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선형성 여부를 살펴 보았을 때, 두 변인은 상관관계 $r=0.320$, $p<0.001$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의 관계는 선형 관계로 나타나며, 이상으로 단순선형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절.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뉴스 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주가설에 따라,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인용 여부를 검증하였다.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t(p)	F(p)	R ²
	계수	계수	계수			
	B	SE	β			
(상수)	1.980	0.137		14.426 ^{***}		
뉴스 리터러시	0.238	0.052	0.320	4.564 ^{***}	20.827 ^{***}	0.103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F=20.827(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R² =0.103으로 10.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뉴스 리터러시는 β =0.238(p<.001)로 귀무가설이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시민적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β 부호가 정(+)적이므로 뉴스 리터러시가 증가하면 시민적 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참여활동 경험, 임원 경험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변수 통제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2.048	0.131		15.681 ***	1.664	0.165		10.101 ***
성별	-0.004	0.089	-0.003	-0.048	-0.017	0.086	-0.013	-0.197
참여 활동 경험	0.431	0.133	0.219	3.228 ***	0.383	0.130	0.195	2.954 **
임원 경험	0.488	0.097	0.3467	5.046 ***	0.428	0.095	0.303	4.495 ***
뉴스 리터 러시					0.181	0.050	0.244	3.630 ***
$F(p)$	12.558***				13.350***			
R^2	0.173				0.230			
adj. R^2	0.159				0.213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참여활동 경험*없음, 임원 경험*없음

<모형1>은 성별, 참여활동 경험, 임원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제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인 뉴스 리터러시를 추가로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1>에서 $F=12.558(p<.001)$, <모형2>에서 $F=13.350(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R^2 = 0.173$, <모형2>의 $R^2 = 0.230$ 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57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 ($F=13.178$)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의 뉴스 리터러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630$, $p<.001$ 로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beta=0.244$ 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뉴스 리터러시가 증가하면 시민적 효능감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추가설** : 뉴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양적연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북지역 중소도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학년 전체 학생 246명 가운데 총 216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동의하여 이에 응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4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하여, 뉴스 리터러시를 독립 변인으로, 시민적 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변수인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선형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두 변인은 상관관계 $r=0.320$, $p<0.001$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은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라는 추가설에 따라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인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적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10.3%의 설명력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참여활동 경험, 임원 경험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R 제곱 변화량이 0.057 증가하였으며, R제곱 F변화량($F=13.178$)에 따른 유의확률 $p<0.001$ 으로, 결과적으로 23.0%의 설명력을 보이며 통제변수 투입 후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의 시민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학교 1학년의 시민적 효능감 점수는 평균 2.57점으로, 학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항별로 대조해 보면, 친숙한 환경에서의 의견 주장 및 토론에는 자신감이 높지만 보다 낯선 공간이나 모르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는 초기 청소년기라는 연령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 이상의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시민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수준의 교육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학교 1학년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은 평균점수 2.48점으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별 문항 별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적극적 뉴스 이용 행태보다는 여전히 소극적 이용 행태에 친숙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향후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사회과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혹은 향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추

상적인 미디어 교육에서 한 발 나아가, 뉴스 리터러시를 중심에 둔 실질적인 사회과 교과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나 사회문화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를 내용 요소로 다룬 뒤, 토론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성 함양의 핵심 역량인 시민적 효능감 증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와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적 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요인이기는 하나, 시민적 효능감 함양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 이유를 추론하고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가 사회과 뉴스 리터러시교육이 지식의 측면에서 교과교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 것과 별개로, 뉴스 리터러시가 단순히 지식적 측면만을 내포하는 것만은 아니며, 더욱 고차원적인 능동성과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역량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의 상관성은 검증된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시민적 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고안 과정에서 인지적 영역과 가치태도를 포괄하는 정서, 행동적 영역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가 시민적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즉, 시민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혹은 사전-사후 교육적 처치를 통하여 뉴스 리터러시 역량의 유무 혹은 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시민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면,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시민적 효능감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의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시민적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민적 효능감 검사지는 시민적 효능감을

단일요인으로 하는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효능감 측정 문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시민적 효능감을 측정하기에는 문항의 수와 그 내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적 효능감 검사 도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척도 문항에 대한 구체화, 세분화, 다양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뉴스 리터러시 역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척도 문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문항의 일부를 선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각종 뉴스 이용 미디어에 대한 문항, 뉴스 편향이나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항, 본인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 성찰 및 개선해 볼 수 있는 관련 문항들이 추가된다면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와 시민적 효능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학생들이 교내외 참여활동 이외에 교과교육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역시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과에서 보다 대중적인, 다수를 위한 교육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교육을 통한 가치태도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균형 잡힌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교육부.
- 길혜지·박지민·조효제 (2020). 청소년의 시민성 관련 활동, 시민적 효능감, 미래 정치참여 의식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Vol.31, No.3, p.165-189.
- 김동진·김재우 (2021). 민주적 학급풍토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시민교육연구, 제53권 1호, p.1-25.
- 김명정 (201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4권 2호, p.1-28.
- _____ (2017). 정치교육이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OUGHTOPIA, 32(1), p.101-123.
- 김아미 (2017). 청소년 대상 뉴스리터러시 교육 방향 탐구 : ‘가짜뉴스’ 현상과 청소년의 뉴스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영상미디어교육연구회 발표논문, p.285-286.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p.99-127.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집, p.49-88.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p.201-222.
- 김정은 (2021). 카드뉴스를 활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동 -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7, 한국국어교육학회, p.309-335.
- 김진철·장봉석 (2010). 초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

- 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3호, p.39-60.
- 김태준(2016). 청소년의 시민적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 교육심리연구, 30(3) p.535-558.
- 김태한 (2013).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 및 내적 정치효능감 발달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5권 4호, p.1-37.
- 김현경 (2014). 사회참여 수업이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 공동체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6권 2호, p.33-72.
- 남미자·장아름 (2020).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7(1), p.31-60.
- 노들·옥현진 (2022).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제44권 2호, p.1-25.
- 모경환·김명정·송성민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2권 1호, p.77-101.
-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 변길섭 (2014). 청소년 시민참여활동과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시민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2호, p.1-46.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10).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송성민 (2018). 한국 청소년의 정치 문해력과 시민의식 - 시민교육에서 지식을 통한 시민의식의 형성, 법교육연구, 제13권 1호, p.35-62.
- 양길석·서수현·옥현진 (2021).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 분석: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뉴스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 5호, p.23-30.
-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뉴스 리터러시 교육 I : 커리큘럼 및 지

- 원 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제2015-01호.
-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5, No.3, p.49-72.
- 옥일남 (2007). 사회과의 ‘사회 참여’ 수업 실행에 대한 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9권 1호, p.111-152.
-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p.141-166.
- 이강수 (2011). 『뉴스론: 미디어 사회학적 연구』, 나남.
- 이경윤 (2017). 전교어린이회 선거활동 참여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p.581-600.
- 이영만 (2000). 교육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양식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 진주교육대학교, 9, p.97-132.
- 이숙정 (2019).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 제2019-04호, p.10-31.
- 이숙정 · 양정애 (2017). 뉴스 리터러시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1권6호, p.152-183.
-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도서출판 삼영.
- 이재원 · 박동숙 (2016). 소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재개념화: 뉴스 큐레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2(2), p.171-206.
- 이정민 · 정혜원 (2019). 중학생의 봉사활동 참여와 시민의식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중등교육연구, 67(1), P.67-93.
- 이정우 (2021). 뉴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제안, 시민교육연구, 제53권 4호, p.247-267.

- _____ (2021). 사회과 예비교사 대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그 효과, 육
과학연구, Vol.23, No.4, p.145-172.
- 이정훈 · 이두황 (2013). 뉴스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의 뉴스콘텐츠 이용
영향에 대한 연구 : 20대 뉴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Vol.13, No.8, p.180-190.
- 이해주 · 최윤진 · 구정화 (2008). 청소년 인권과 참여, 서울: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출판부.
- 장은주 · 정현선 · 길호현 · 김아미 (2017).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중
학교 교과서 단원 모형 개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1), 우
리말교육현장학회, p.79-117.
- 장윤재 (2021). 2021 언론수용자 조사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한국언론
진흥재단, 조사분석 제 2021-01호, p.12-33.
- 정낙원 (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 제 2020-05호, p.12-33.
- 정진리 (2019). 여성 롤모델이 청소년의 시민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
구, 서울:서울대학교대학원.
- 전자배 (2021). 사회과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수업의 방향 모색: 댓글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3(1), 시민교육연구, p.137-162.
- 조병영 (2021). 『읽는인간 :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쌤엔파커스.
- 조혜영 · 최창욱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
청소년학회지, 5, p.111-140.
- 주성수 (2005). 자원봉사: 이론, 제도, 정책, 서울: 아르케.
- 차경수 · 모경환 (2020). 개정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 최길성 (2021). 팩트체크 뉴스 만들기 수업이 가짜뉴스 식별, 전파에 미
치는 효과, 서울:서울대학교대학원.
- 한숙경 (2006). 초등학생의 사고양식,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
석,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4호, p.255-275.

- 한인영 · 박형원 · 김주현 (2005). 전공교육과 연계한 봉사학습의 효과 연구 : 사회복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p.251-276.
- 홍주현 (2021).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 제2021-03호, p.16-41.
- 황용석 · 김대경 · 정동우 (2012). 뉴스룸의 내외적 자원융합에 관한 연구-통합뉴스룸과 수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49권 1호, p.73-106.
- Aufderheide, P.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Aspen, CO., Aspen Institute.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191-215.
- Bawden, D.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of Documentation, 57(2), p.218-259.
- Braungart, M. M., & Braungart, R. G. (1990). The Life-Course Development of Left-and Right-Wing Youth Activist Leaders from the 1960s, Political Psychology, 11(2), p.243-282.
- Bruns. A. (2008). Blogs, Wikipedia, Second Life, and Beyond : From production to Produsage, 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 Campbell, A., Gurin, B.,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Row Peterson & Company.
- Celsi, R., & Olson, J. (1988).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e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5, p.210-224.
- Choi, J. (2016). New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he Dimensions of News Sharing on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p.1-20.

- Craig, S. C., Niemi, R. G., &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i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ur*, Vol 12, No.3, p.289-314.
- Deuze, M. (2008). Understanding journalism as newswork: How it changes, and how it remains the same, *Westminster Papers in Communication and Culture*, 5(2), p.4-23.
- Ekman, J. & Amnå, E.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22(3), p.283-300.
- Finkel, S. E. (1987).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No. 4, p.891-913.
- Freire, P. (1985). Reading the Word and reading the world: An interview with Paulo Freire, *Language Arts* 62, p.15-21.
- Hartley, J. (1982). *Understanding News*, Methen.
- Hobbs, R. (2010a). News literacy: What works and what doesn' 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AEJMC) Annual Conference, at Denver, Colorado, August 7, 2010.
- Jenkins, H. (2008).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KimJung, H., & Kim, D.), Seoul: BizandBiz (2006).
- Krampen, G. (2000). Transition of Adolescent Political Action Orientations to Voting Behavior in Early Adulthood in View of a Social-Cognitive Action Theory Model of Personality, *Political Psychology*, 21(2), p.277-299.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212-247.

- Lie, J., & Park, D. (2016). Re-conceptualization of news literacy in the social network journalism era: Expanding the concept of News Cur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2), p.171-206.
- MacDougall, C. D. (1964). *The Press and Its Problems*, W.M.C. Brown Company Pub.
- Manganelli, S., Lucidi, F., & Alivernini, F. (2015). Italian adolescents' civic engagement and open classroom climate: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8-18.
- Mihailidis, P. (2012). *New Literacy: Global perspectives for the newsroom and the classroom*, Peter Lang.
- Newton, R. (1985). *Newspaper in education: New readers for newspap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Western Social Science Association, Ft. Worth, Texas.
- Pasek, J., Feldman, L., Romer, D., & Jamieson, K . H.(2008). Schools as Incubator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 Building Long-Term Political Efficacy with Civic Education,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2(1), p. 26-37.
- Potter, W. J. (2013). *Media literacy (7th ed.)*, Thousand Oaks, CA: Sage.
- Purcell, K., Rainie, L., Mitchell, A., Rosenstiel, T., & Olmstead, K. (2010), *Understanding the participatory news consumer*. Retrieved August 15, 2022., from http://www.pewinternet.org/~media/Files/Reports/2010/PIP_Understanding_the_Participatory_News_Consumer.pdf.
- Shwartz, F. (2011). *Media Literacy and the News*, Windesheim School of Media in Zwolle, the Netherlands.
- Tyner, K. (2014). *Literacy in a digital worl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Routledge.

Zaichkowsky, J. L. (1986).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No.3, p.341-352.

<부록 1> 시민적 효능감 조사 설문지

시민적 효능감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김문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시민적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며, 전체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순수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제한은 없으니 꼼꼼하게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김문정
이메일: _____

1. 다음의 주어진 상황들이 생길 경우 스스로 어떻게 행동했거나/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V표 해 주세요.

문 항	매 우 잘 한 다 ①	잘 하 는 편 이 다 ②	못 하 는 편 이 다 ③	매 우 못 한 다 ④
1. 나는 국가 간 갈등을 다룬 뉴스를 보고 이와 관련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다.				
2. 나는 논쟁적인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3. 나는 학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4. 나는 교내·외에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학생 조직(동아리, 자치조직 등)을 만들 수 있다.				
5. 나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텔레비전(TV) 토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6. 나는 언론사에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낼 수 있다.				
7. 나는 학급에서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발표를 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김문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뉴스 리터러시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며, 전체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순수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만의 생각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제한은 없으니 꼼꼼하게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김문정

이메일: _____

1.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V표 해 주세요.

문 항	매 우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매 우 그 렇 지 않 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인터넷 포털 뉴스 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2. 나는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본다.					
3. 나는 내가 미리 설정한 서비스(My뉴스, 구독 등)를 통해 뉴스를 확인한다.					
4. 나는 뉴스를 볼 때 댓글도 함께 본다.					
5. 나는 내가 본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					
6. 나는 내가 본 뉴스나 뉴스 댓글에 공감 표시를 한다.					
7. 나는 내가 본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뉴스를 SNS 등에 공유한다.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

2.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하거나 적당한 내용을 적어 주세요.

(선택응답 가능)

(1) 나의 성별은 : ① 여자 ② 남자

(2) 나의 나이는 : () 세

(3) 나의 성적은 :

- ① 상위 20%이내 ② 20%~40% ③ 40%~60%
④ 60%~80% ⑤ 80%~100%

(4) 우리 집 가정 형편은 :

- ① 매우 여유가 있다 ② 대체로 여유가 있다 ③ 걱정은 없다
④ 약간 가난하다 ⑤ 생계가 걱정된다

(5) 참여활동 경험 (올해 교내·외 동아리,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캠페인 활동 등) :

- ① 있다 ② 없다

(6) 임원 경험 (올해 학급 또는 학생회 임원) :

- ① 있다 ② 없다

(7) 나의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Abstract

The Effect of News Literacy on Citizenship Self-efficacy among Adolescents

Moonjeong K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izenship refers to the universal rights, qualifications, and virtues owned by citizens. There are common civic values pursued by societies based on democracy, but the specifics of citizenship required within a society varies depending on the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Therefore, in line with the changing society, citizenship education is necessary to grow an individual into an independent citizen who respects the values of democracy.

Among the elements of citizenship needed to achieve the purpose of citizenship education, there is the concept of citizenship self-efficacy. This is confidence and assurance in one's ability to effectively play a role as a citizen. The formation and promotion of citizenship self-efficacy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mbers and the growth of civil consciousness.

In the meantime, various in-school and outsid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adolescents' citizenship self-efficacy. As citizenship self-efficacy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e, it emphasizes adolescents' experience in areas other than curriculum education based on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However, the cognitive aspect of learning knowledge and function as independent participants in a democratic socie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particular, social studies has a curriculum characteristic that most actively learns and considers societal issue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so the learning experience of social studies to form and promote citizenship self-efficacy is more meaningful. However, currently, social studies education is not paying enough attention to the cognitive aspects of curriculum education in promoting citizenship self-efficacy.

Starting with this awareness of problems, this study sought ways to promote citizenship self-efficacy within the curriculum education of the social studi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In particular, the study paid attention to news literacy as a new factor in enhancing citizenship self-efficacy. This is because news literacy has a strong cognitive element that begins with understanding and exploring the content of the news text, with the ultimate goal of fostering citizenship. Based on this, the following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literacy and

adolescents' citizenship self-efficacy.

■ Hypothesis. The higher the adolescents' news literacy, the higher their citizenship self-efficacy.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246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Jeollabuk-do provinc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inearity between news literacy and citizenship self-efficacy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two variabl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and met the basic assumption.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e acceptance through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main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suitability of this regression model was verified, and that news litera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hip self-efficacy, but it was somewhat less convincing. On the other hand, the study conduc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gender,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leader experience that may affect citizenship self-efficacy, and the impact of news literacy on citizenship self-efficacy has increased slightly.

In sum, besides in-school and outside-school participation activities, news literac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citizenship self-efficacy.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ved the possibility of fostering value attitudes through

knowledge education, and this suggests that news literacy education is essential as a learning experience in social studies within the subject education that all students can receive equally. For adolescents to become desirable members to actively and posi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specific methods and content elements related to news literacy education should be further discussed and devised as a way to promote citizenship self-efficacy in the citizenship education of the social studies in the future.

keywords : social participation, citizenship self-efficacy, political efficacy, news literac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ivil consciousness

Student Number : 2020-21533